

## (주)계흥, 육계업계의 고민을 해결한다



육계산업은 지난 1980년 후반 육계계열화 사업이 도입되고 전업화, 규모화, 현대화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과정에서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불협화음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육계업계에서 장기간 경력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상호 입장을 대변하여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기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주)계흥”이 탄생하였다.

본고는 “계흥과 함께하면 육계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슬로건 아래 (주)계흥을 탄생시킨 유재석 대표를 만나 사업 방향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 농가 사양기술 보급에 앞장

유재석 사장은 1985년 천안연암대에서 사료학을 전공하고 1988년 11월 육계계열화 업체인 (주)천호인티그레이션 사육관리부에 입사하여 육계 사육농장 기술지도를 시작하면서 양계업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1995년 도에는 (주)해마로식품 협력업체 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사육농가에 육계 사

#### ▲ 유재석 대표

- 1988 천안연암대학교 사료학과 졸
- 1989 천호인티그레이션(주)
- 1995 (주)해마로식품 협력업체 “토금토금” 창업
- 2009 (주)계흥 대표이사
- 저서 “일령별 육계사양관리”(2003)
- 단국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8-2009)

양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담당해 오고 있다.

1995년도에는 “토금토금”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육계 컨설팅 회사인 “피스코(FISCO)”와 업무 제휴를 해왔으며 농장 사양관리 교육을 병행하면서 업계에서 육계사육관리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1999년에는 그간의 육계사육 현장에서 배워온 사양관리를 기반으로 육계사양관리 단행본을 만들었고 2003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육계사양관리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일령별 육계사양관리” 책자를 제작하면서 육계사양관리 전문가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 책자를 통해 육계사육에 처음 입문한 농가 뿐 아니라 기존 농장 관리자들에게 사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지금도 육계사육의 기본 책자로 활용되고 있다. 유재석 대표는 본지뿐만 아니라 양계관련 잡지들을 통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원고를 투고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 등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재석 대표는 21세기에 맞게 규모화, 현대화된 무창계사 보급이 증가되는 현실에 맞춰 “신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금년중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 (주)계흥 탄생은 시대적인 요구

충남 논산시 부창동에 위치한 (주)계흥은 유재석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 4명이 마을을 모아 설립한 회사로써 계열화의 양적인 팽창에 의해 계열주체들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인한 불신을 최소화하고 국내 육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주)계흥은 총 7명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원 4명의 경력만 해도 100년이 넘는 정도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 전문가로 구성된 (주)계흥 임직원

있다. 현재 120농가에서 400여만수의 육계를 관리하고 있는 (주)계흥은 종계장, 부화장, 사육농장, 도계장, 체인점 등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서비스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유재석 대표는 “지금까지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농가 개개인들의 경우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축종에 비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실패를 반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계흥은 각종 시험사육과 현장 경험에서 획득한 소중한 자료를 업계와 함께 공유, 마음의 벽을 허물어 육계인 모두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30%이상 원가절감 가능

유재석 대표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병아리와 사료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얘기 하지만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사육과정에서 농장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경우 30% 이상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계흥에서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주)계흥은 농장들의 등급을 4단계로 나누어 잘하는 농장은 그 수준에 맞는 판매망을 확보해 주고 성적이 낮은 단계의 농장은 그 원인을 파악해 상위 단계로 높일 수 있는 사양기술을 전달해 주



▲ 사무실 전경



▲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잘못된 농장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 사례를 알림으로써 육계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석 대표는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되듯이 (주)계흥의 모든 자료를 전국의 농가들을 위해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주)계흥은 4월부터 직영농장을 시범사육농장으로 운영하면서 금년까지 4개의 직영농장을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분석하여 농가들에 알릴 예정이다.

### 육계 컨설팅의 중심지

(주)계흥은 현재 육계, 종계, 부화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도계와 체인점 사업에까지 영역을 넓



▲ 유재석 대표는 육계사육 전문가로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농가 지도에 여념이 없다.

혀갈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이나 업계에서 종계, 부화, 육계사양, 도계, 유통 등 양계 전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와 회사간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 수의사를 통한 수의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전문가와 연결하여 계사 신축, 증축, 단열에 대한 업무와 계사내부 시설에 필요한 급이, 급수, 환, 안개분무, 열풍기 등 사육에 필요한 기술력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재석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는 계열사 종계 담당자들의 정례모임도 (주)계흥 사무실에서 마련할 계획을 갖는 등 (주)계흥을 중심으로 모든 육계산업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토털시스템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재석 대표는 육계업을 하면서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계흥의 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연락처 041-733-1140, 011-217-5972).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